

사단법인 <b>세상과함께</b> www.twtw.or.kr	<h1>보 도 자 료</h1>		
<b>배 포 일</b>	2021. 11. 2. / (총 4매)		
세상과함께 환경상 담당부서	사무국	전 화	전종열 사무처장 010-6844-9449
담 당 자	전종열 공영관		공영관 사무국장 010-9533-2502

**제2회 오체투지환경상 <환경대상> ‘경주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상>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비상도민회의, <특별상>**  
**탈핵신문·김익중·임순례 등 수상**  
**대상 상금 5000만원 등 총 19개 개인·단체에 1억 9,300만원**  
**상금·기금 수여**

<사단법인 세상과함께>(이사장 유연스님 <http://www.twtw.or.kr/>)는 2021년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이하 오체투지 환경상) ‘대상’으로 경주환경운동연합, ‘환경상’으로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선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공로상, 특별상, 환경연구·활동기금, 풀뿌리활동지원 기금 등 총 6개 부분에 걸쳐 19개의 개인 및 단체를 올해 환경상 수상·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2015년 창립한 (사)세상과함께는 그동안 국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돕고 해외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미얀마 학교 건립 및 어린이 돕기, 국내 장애인 돕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습니다.

**제2회 오체투지 환경상에 64건 응모... 총 19개 개인·단체 선정**

세상과함께가 지난해에 오체투지 환경상을 제정한 이유는 2003년 갯벌에 갇들어 사는 저서생물을 위한 삼보일배와 2008년 4대강사업을 막아내려고 아스팔트 위에서 뜨겁게 온몸을 던지며 생명, 평화, 사람의 길을 걸었던 오체투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실천적 노고를 응원하고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2회 오체투지 환경상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64건의 개인과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부문별로는 환경상 22건, 특별상 26건, 환경연구지원기금 4건, 환경활동지원 기금 4건, 풀뿌리 환경활동지원기금 5건, 공모전 3건이었습니다.

이철수 오체투지환경상 심사위원장과 (사)세상과함께 송옥규 환경위원장 등 환경, 인권, 언론 등의 영역에서 활동해 온 8명의 심사위원들은 ①현장성(활동현안의 구체성) ②지속성(활동기간) ③독립성(재정운영의 건전성) ④확장성(활동의제의 사회적 파급력) ⑤대안성(환경운동의 질적 성장 도모) ⑥시민성(시민참여와 소통) ⑦민주성(활동의 투명성과 연대활동) ⑧시의성(사회적 관심)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9건의 개인과 단체를 2021년 제2회 오체투지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환경상과 특별상 부분은 대상을 포함해 12건의 개인과 단체입니다. ‘연구지원 기금’과 ‘활동지원 기금’ 지원 부문은 3개 단체로 정했습니다. 풀뿌리환경활동 지원 대상은 4개 단체입니다.

**‘대상’ <경주환경운동연합> 상금 5000만원.**

**‘환경상’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금 3000만원**

제2회 오체투지 환경상의 최고 영예인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경주환경운동연합>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탈핵과 교육사업 등 다양한 환경운동을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탈핵 운동을 하면서 월성1호기 폐쇄를 견인했고,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온 현장성과 헌신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상에게는 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환경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제주의 생태·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주도민 사회와 전국적 공감대를 높이고 제주 성산 일대의 제2공항 건설 반대 여론을 이끈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입니다.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기구인 전국행동과 제주지역사회 114개 단체가 결집한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절차적·환경적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환경상에게는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환경연구·활동지원 기금 <EJ현장연구모임> 등 3개 단체... 공로상 <김철기>**

‘환경연구지원 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EJ현장연구모임>(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 연구사업), <DMZ 일원 생명평화시민연대>(강화에서 철원까지 DMZ 일원의 국제 멸종위기종 두루미 동시 조사 사업)입니다. ‘환경활동지원 기금’ 대상자는 <녹색법률센터>(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 환경피해 대응활동 법률지원 등)입니다. 위의 3개 단체에는 각각 사업에 필요한 기금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별상 부문의 ‘공로상’ 수상자는 <김철기>입니다. 한강 하구 장항습지에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민족문제연구소 지부장으로 한반도 평화 운동을 해왔던 김철기님은 장항습지에서 갯골 부유 쓰레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뒤 민족운동가, 환경운동가에 이어 지뢰운동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특별상 <탈핵신문> <김익중> <임순례> 등, 풀뿌리활동지원기금은 4개 단체 선정**

올해 신설된 특별상 ‘나모상’ 부문 수상자는 국내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동물권 진영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임순례> 카라 전 대표이자 영화감독, 특별상 ‘언론’ 부문에서는 핵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신문을 표방하며 2012년 6월에 창간해 탈핵 운동을 기록해 온 <탈핵신문>을 선정했습니다.

특별상 ‘환경교육’ 부문에서는 미생물학과 면역학을 전공한 의과대학 교수이자 ‘한국탈핵’의 저자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천 회 이상의 현장강의를 해 온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역임하고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이사이자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운영위원인 조천호 님을 선정했습니다.

특별상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밀양송전탑 싸움, 4대강 사업으로 수몰된 마을에 대한 영상 기록 등 환경 파괴의 현장을 예술로 승화시켜 대중에게 각인시킨 박배일 감독을 선정했습니다. 위의 4개 부문 특별상은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특별상 ‘생활실천’ 부문에서는 울산에서 환경의식을 널리 전파하는 해 온 자발적 시민 모임 <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구 시민운영진>, 기후위기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습니다. 특별상 ‘생활실천’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특별상 ‘청년’ 부문에서는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청년기후긴급행동>, ‘내성천 흰목물떼새 시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참여 조사 지침서’ 발행에 참여한 <김윤전> 님을 선정했습니다. 청년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신설된 ‘풀뿌리환경활동지원기금’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4개 단체입니다. 부산시 사하구 지역의 기후위기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 등을 진행하는 <기후위기 사하비상행동>, 전북 정읍시의 상두산에서 석산 파괴로 오염되는 지금실 저수지의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계획하는 <김개남과 상두산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백지화 운동을 진행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원주시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계획하는 <원주녹색연합>입니다. 이 단체에는 각각 200만원의 활동 기금을 지원합니다.

### 심사위, ‘현장성’ ‘지속성’ 등 평가, 절박한 곳에 우선 배려... 내년 이월 심사 결정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이상 19건의 개인과 단체를 환경상과 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상금과 기금 총액 1억 9,300만원을 수여합니다. 지난해 제1회 오체투지 환경상에 비해 시상 대상을 24개 개인과 단체로 늘렸고, 상금 총액도 지난해 2억 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했지만, ‘환경 콘텐츠’ 공모 등 일부 부문에서 시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부득이하게 이번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착박한 환경운동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데에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 심사 때 공적조서를 이월해 추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세상과함께는 지난해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1회 오체투지 환경상 공모를 진행했고, 전국에서 총 64건의 개인과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환경 대상’은 지난 10여 년간 4대강 사업을 고발해 온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수상했고, ‘환경상’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세상과함께 이사장인 유연 스님은 “지금도 환경파괴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사람의 길을 걷는 ‘삼보일배 오체투지인’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그 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은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71(월성원자력 공원 내)에서 환경대상 수상자인 경주환경운동연합을 ‘찾아가는 시상식’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는 <오마이TV>가 온라인으로 생중계 합니다.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참가자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사)세상과함께 사무국(담당자 서상현 010-5940-6198)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과 관련, 각 단체와 개인의 수상 결정문 등 자세한 소식은 (사)세상과함께 홈페이지(<http://www.twtw.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 심사결정문

##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전체 심사 결정문>

사단법인 <세상과함께>(이사장 유연 스님)는 모든 생명의 존엄과 안락한 행복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삼보일배, 오체투지했던 정신을 되살리려고 2020년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이하 오체투지 환경상)을 제정했습니다.

삼보일배(三步一拜)는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을 하는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은 2003년 3월 28일부터 65일 동안 삼보일배하면서 새만금의 해창 갯벌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약 305km 구간을 걸었습니다. 개발로 죽어갈 새만금 갯벌의 못생명을 살리려는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오체투지(五體投地)는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불교 수행법입니다. 수경 스님은 4대강사업이 추진된 2008년 9월 4일부터 지리산 노고단에서 출발해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까지 200여km를 59일 동안, 이듬해 3월28일부터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에서 임진각까지 하루 4km씩 49일 동안 아스팔트길을 자벌레처럼 온몸으로 기었습니다.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 제2회 오체투지 환경상에 64건 공모

지난 2015년 창립해서 국내 소외계층과 해외 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해 온 (사)세상과함께(<http://www.twtw.or.kr/>)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1회 오체투지 환경상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64건의 개인과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고, 부문별로는 환경상 22건, 특별상 26건, 환경연구지원기금 4건, 환경활동지원 기금 4건, 풀뿌리 환경활동지원기금 5건, 공모전 3건이었습니다.

환경상과 특별상 부문에는 수십년간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세력과 맞서 싸우거나, 전국에 산재한 각종 환경 파괴 현장을 고발해 온 개인과 단체들이 응모해왔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생활 실천 운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해온 작은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갯벌 살리기 운동 등 각 영역에서 수십년간 헌신해 온 단체 활동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려온 언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실천해온 분들이 응모를 해왔습니다. 또 올해 신설된 ‘나모상’과 ‘풀뿌리활동지원기금’에도 동물사랑을 실천해오신 개인과 단체,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환경운동을 해온 작은 단체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연구지원 기금’과 ‘환경활동지원 기금’ 지원 단체들도 각 영역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면서 생태 담론을 연구하거나, 제주 곶자왈 서식 보호종 조사활동 등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철수 오체투지환경상 심사위원장과 (사)세상과함께 송옥규 환경위원장 등 환경, 인권, 언론 등의 영역에서 활동해 온 8명의 심사위원들은 ①현장성(활동현안의 구체성) ②지속성(활동기간) ③독립성(재정운영의 건전성) ④확장성(활동의제의 사회적 파급력) ⑤대안성(환경운동의 질적 성장 도모) ⑥시민성(시민참여와 소통) ⑦민주성(활동의 투명성과 연대활동) ⑧시의성(사회적 관심)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접수된 64건의 공모 내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 운영위원들은 추가 면접 등을 통해 공적 자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9건의 개인과 단체를 2021년 제2회 오체투지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환경상과 특별상 부분은 대상을 포함해 12건의 개인과 단체입니다. '연구지원 기금'과 '활동지원 기금' 지원 부문은 3개 단체로 정했습니다. 풀뿌리환경활동 지원 대상은 4개 단체입니다.

**'대상' <경주환경운동연합> 상금 5000만원,**

**'환경상'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금 3000만원**

제2회 오체투지 환경상의 최고 영예인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경주환경운동연합>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탈핵과 교육사업 등 다양한 환경운동을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탈핵 운동을 하면서 월성1호기 폐쇄를 견인했고, 이를 통해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온 현장성과 헌신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상에 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환경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제주의 생태·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주도민 사회와 전국적 공감대를 높이고 제주 성산 일대의 제2공항 건설 반대 여론을 이끈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입니다.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기구인 전국행동과 제주지역사회 114개 단체가 결집한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절차적·환경적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환경상에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환경연구·활동지원 기금 <EJ현장연구모임> 등 3개 단체... 공로상 <김철기>**

'환경연구지원 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EJ현장연구모임>(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 연구사업), <DMZ 일원 생명평화시민연대>(강화에서 철원까지 DMZ 일원의 국제 멸종위기종 두루미 동시 조사 사업)입니다. '환경활동지원 기금' 대상자는 <녹색법률센터>(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 환경피해 대응활동 법률지원 등)입니다. 위의 3개 단체에는 각각 사업에 필요한 기금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별상 부문의 '공로상' 수상자는 <김철기>입니다. 한강 하구 장항습지에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민족문제연구소 지부장으로 한반도 평화 운동을 해왔던 김철기님은 장항습지에서 갯골 부유 쓰레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뒤 민족운동가, 환경운동가에게 이어 지뢰운동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특별상 <탈핵신문> <김익중> <임순례> 등, 풀뿌리활동지원기금은 4개 단체 선정**

올해 신설된 특별상 '나모상' 부문 수상자는 국내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동물권 진영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임순례> 카라 전 대표이자 영화감독을 선정했습니다. 특별상 '언론' 부문에서는 핵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신문을 표방하며 2012년 6월에 창간해 탈핵 운동을 기록해 온 <탈핵신문>을 선정했습니다.

특별상 '환경교육' 부문에서는 미생물학과 면역학을 전공한 의과대학 교수이자 '한국탈핵'의 저자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천 회 이상의 현장강의를 해 온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역임하고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이사이자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운영위원인 조천호 님을 선정

했습니다.

특별상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밀양송전탑 싸움, 4대강 사업으로 수몰된 마을에 대한 영상 기록 등 환경 파괴의 현장을 예술로 승화시켜 대중에게 각인시킨 박배일 감독을 선정했습니다. 위의 4개 부문 특별상은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특별상 ‘생활실천’ 부문에서는 울산에서 환경의식을 널리 전파하는 해 온 자발적 시민 모임 <자원순환가게 착각까지구 시민운영진>, 기후위기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습니다. 특별상 ‘생활실천’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특별상 ‘청년’ 부문에서는 설립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청년기후긴급행동>, 생태지평연구소와 함께 ‘내성천 흰목물떼새 시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에 함께했고,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참여 조사 지침서’ 발행에도 참여한 <김윤전> 님을 선정했습니다. 청년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신설된 ‘풀뿌리환경활동지원기금’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4개 단체입니다. 부산시 사하구 지역의 기후위기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 등을 진행하는 <기후위기 사하비상행동>, 전북 정읍시의 상두산에서 석산 파괴로 오염되는 지금실 저수지의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계획하는 <김개남과 상두산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백지화하여 제주도의 도로 난개발과 생태파괴를 막고, 도로 예정지의 녹지공원화 운동을 진행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원주시에서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계획하는 <원주녹색연합>입니다. 이 단체에는 각각 200만원의 활동 기금을 지원합니다.

### 심사위, ‘현장성’ ‘지속성’ 등 평가, 절박한 곳에 우선 배려... 내년 이월 심사 결정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이상 19건의 개인과 단체를 환경상과 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상금과 기금 총액 1억 9,300만원을 수여합니다. 지난해 제1회 오체투지 환경상에 비해 시상 대상을 24개 개인과 단체로 늘렸고, 상금 총액도 지난해 2억 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했지만, ‘환경 콘텐츠’ 공모 등 일부 부문에서 시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에 참가한 대부분의 개인과 단체가 상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개인과 단체의 그간 활동 과정을 놓고 볼 때 그 무게의 경중을 따지기 힘든 ‘대상’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결국, 심사위원회는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탈핵 운동을 진행한 노고와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심사위원회는 현장성과 헌신성, 운동의 지속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고, 가급적 활동비 등이 절박한 분들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부득이하게 이번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척박한 환경운동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데에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 심사 때 공적조서를 이월해 추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사)세상과함께는 지금도 환경파괴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사람의 길을 걷는 ‘삼보일배 오체투지인’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그 길에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 <경주환경운동연합> 대상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의 폐쇄결정 등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원전 비리와 사용후핵연료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원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진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탈핵과 교육사업 등 다양한 환경운동을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원전 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월성1호기 폐쇄 준비운동본부, 월성 원전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지원활동과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월성원전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 공동행동 등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과 함께 핵발전의 문제를 알리고 대응하는 데 이바지 했습니다.

핵발전은 생산되는 전기의 대부분을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이용하는 반면 전기를 만드는 과정과 핵발전 가동으로 생기는 폐기물의 저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불평등한 에너지원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위험하고 불평등한 원자력 발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냈으며,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역량은 국회와 정치권이 관련 정책을 입안하도록 견인했습니다.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탈핵 운동을 하면서 월성1호기 폐쇄를 견인했고, 이를 통해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게 큰 몫을 담당한 <경주환경운동연합>을 2021년 오체투지환경상 대상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최준호

##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환경상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제주의 생태·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주도민 사회와 전국적 공감대를 높이고 제주 성산 일대의 제2공항 건설 반대 여론을 이끈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2021년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의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9년 11월에,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성산지역 반대주민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114개가 결집하여 2019년 8월에 출범하면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절차적·환경적 문제를 전국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제주도민 사회의 결집을 높여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를 반대로 이끌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입지 발표 이후 지금까지, 지역과 전국 단위의 연대를 이끌며 시민 캠페인과 기자회견, 토론회와 강연, 단식과 주민 촛불집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대응, 항공기-조류 충돌·소음평가·법정 보호종·동굴과 숲골 등 현장조사,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등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응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반려'로 결정지으며 국토부의 공항건설사업 강행을 저지시켰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의 환경과 생태, 사회적 수용성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며 제주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제주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며, 개발사업에 맞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낸 중요한 성과와 향후 시민사회의 유의미한 영향을 고려해 위 단체를 환경상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윤상훈

## <김철기>

### 공로상 수상 결정문

한강 하구이자 남북을 잇는 임진강에서 가까운 고양에서 살아온 김철기 님은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토의 보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강 하구 장항습지에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민족문제연구소 지부장으로 한반도 평화 운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6월 4일,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두고 날벼락 같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드나들며 갯골 부유 쓰레기를 걷어내고 기승을 부리는 가시박을 걷어내던 장항습지에서였습니다. 장화를 신은 발 밑에 뭔가가 밟히더니 순간 터지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지뢰가 터지고 그는 순식간에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동료에게 호소할 만큼 고통을 겪었습니다. 절단된 다리가, 발목이 자꾸 가렵고 아픈 느낌이 있었습니다. 환상통이라는 증상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재활을 하고, 의족을 맞추고 낫선 다리와 익숙해져가는 동안 그가 느꼈을 고통, 후회, 자괴감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국방부와 국가는 나 몰라라 하고 보상과 위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지역의 시민들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새로이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위에도 밝고 힘차게 이겨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앓아간 지뢰 문제를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단 70년의 비극을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에서 운동가로, 김철기 님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뢰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그토록 많은 지뢰사고가 있는지, 왜 국방부와 국가는 모른 척 하는지, 그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환경운동가에 더해 지뢰운동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지뢰 사고. 김철기 님은 그 사고를 개인적 불운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응시합니다. 이제 그는 한반도의 지뢰 문제를 알리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뚜벅뚜벅 평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제2회 오체투지환경상 심사위원회는 환경과 평화를 위한 그의 실천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와 연대의 마음으로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이경호

## <임순례> 특별상 나모상 부문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국내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동물권 진영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임순례 카라 전 대표, 영화감독>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나모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 사설보호소 봉사와 후원 등 개인의 영역에서 꾸준히 동물보호활동을 해오던 임순례 감독은 2009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대표로 선임되며 본격적인 동물권 운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임순례 감독은 각종 천재지변의 재난상황, 인간에 의한 학대와 유기, 불법적인 도살과 비정한 살처분의 현장 등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곁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우리 사회에 널리 정착시켜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동물들을 인간의 남용과 착취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정책의 실현을 위해 단체의 역량을 집중하여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 제언, 길고양이의 보호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공원급식소의 설치 미성년자 해부실습의 금지, 잔인한 대량 살처분을 폐기하기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 공장식축산 헌법소원과 가축사육환경 표시제의 실현을 위해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 무크지 ‘숨’ 발간, 동물권 지식 전파를 위한 한국 최초의 동물보호 교육 센터의 건립, 동물권영화제의 실현 등 문화와 교육, 대중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이뤄내고 우리 사회에 동물권이라는 개념을 알리는 데 일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임순례 감독은 수많은 개인구조와 입양, 봉사활동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열혈 활동가입니다. 반려인 없이 소외된 개와 고양이들이 그의 손을 거쳐 새로운 평생가족을 찾았으며, 틈날 때마다 달봉이네 보호소, 애린원 등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 활동가와 작은 단체들에게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임순례 감독이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비인간 동물들을 대변하여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온 것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상 특별상 나모상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 김정인

## <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구 시민운영진> 특별상 생활실천 부문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울산에서 환경과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아가 환경의식을 널리 전파하는 활동을 하는 자발적 시민 모임 <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구 시민운영진>(이하 착해가지구)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상 특별상 생활실천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나이·성별·연령대가 다양한 12명의 울산 시민들로 운영되는 착해가지구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될까? 어떻게 버려야 지구에게 덜 해로울까?”라는 문제의식에서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지역 시민들과 함께 만나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려했던 이들은 2021년 4월 울산방송 프로젝트에 선발되었습니다.

착해가지구는 자원순환가게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꼼꼼히 검수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알려주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깨끗한 재활용품은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민운영진은 가게에 오는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해가지구 가게에 재활용품을 가져 오면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업체로 가서 자원화가 가능합니다. 지난 8월 한 달에만도 재활용품 1,156kg을 자원으로 만들었고, 현재까지 쓰레기를 재활용한 양은 누적 3,212kg에 달합니다.

착해가지구는 환경동아리 학생들, 어린 친구들, 울산 앞바다에서 쓰레기를 줍고 게시는 시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 분리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플라스틱 선별장의 플라스틱을 모아서 비누받침대로 만드는 이벤트를 하거나 플라스틱 포장재 없는 농담장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울산시민과 함께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일, 나아가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구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 ‘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구’의 활동을 응원하며 제2회 오체투지환경상 특별상 생활실천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 윤경선

##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특별상 생활실천 부문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상 특별상 생활실천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4월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생산자조합원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과 소비자조합원인 환경단체의 주요 구성원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체험 공간 ‘미호동넷제로공판장&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마을단위 탄소중립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비정규직 경비노동자를 위한 경비실 미니태양광 패널을 지원하였으며 금융기관에서 햇빛발전 정기예금 상품을 만들고 예치금을 활용해 햇빛발전소를 구축·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별 에너지전환 주민학교를 운영하여 기후위기 주제에 관심있던 주민을 활동가로 성장시키고, 마을에서 쉽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그 동안 시민들이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공급받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직접 에너지를 만드는 가치의 전환에 기여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온 부분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서 취약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치 확산과 시민참여 모델을 기대하면서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상 특별상 생활실천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 김옥주

## <탈핵신문> 특별상 언론 부문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탈핵신문>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특별상 언론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신문’을 표방하며 2012년 6월에 창간한 탈핵신문은 ‘탈핵’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매달 지면과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탈핵운동을 기록해왔습니다.

창간선언문을 통해 ‘핵발전과 방사능’의 진실을 전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양심적인 학자와 언론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현실이 견딜 수 없어 창간하게 되었다고 창간목적을 밝힌 ‘탈핵신문’은 외부의 경제적 지원 없이 회원들의 구독료로 운영되며, 전국에서 활동 중인 탈핵운동가들이 편집과 운영에 참여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활동가들의 탈핵운동 고민과 열기를 전하는 탈핵신문은 한국 탈핵운동의 역사를 축적하는 아카이브이자 탈핵운동을 연결하고, 활동가와 에너지시민들을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최준호

## <박배일>

### 특별상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활동가 박배일 감독을 2021년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특별상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박배일 감독은 남다른 감각으로 다양한 환경 이슈를 미디어에 담아 왔습니다. 그가 만든 영상은 한 편의 예술작품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현장을 알리는 가교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기에 그의 영상엔 환경파괴에 맞선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있습니다.

미디어로 행동하는 영화감독으로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수년간 기록하였고(밀양전, 밀양아리랑), 4대강 사업 영주댐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삶을 6년 동안 기록하였으며(기프실), 사드 배치에 맞서 고향 땅을 지키려는 소성리 주민들의 삶을 미디어에 담기도 하였습니다(소성리). 이 외에도 환경 문제를 알리는 많은 작품들이 공동체 상영을 통해 각종 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슈를 끝낼 수 없어 싸움 한복판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예술협업프로젝트 <겨울이 지나간 자리>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모습을 담으며 응어리진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박배일 감독 카메라에 담길 다음 작품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현장일 것이고, 자기 삶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길 것입니다. 연대의 씨앗이 될 미디어는 기록이 되어 우리 곁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박배일 감독이 지난 15년 동안 미디어를 통해 환경 이슈를 알려왔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특별상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정민석

## <김익중>

### 특별상 교육 부문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를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특별상 교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미생물학과 면역학을 전공한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한국탈핵'의 저자인 김익중 교수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천 회 이상의 현장강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핵 발전의 문제와 위험성을 알려 탈핵운동의 저변을 확장하고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등의 설립에 참여했고,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책임 있는 전문가이자 실천하는 환경운동가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최준호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 <조천호> 특별상 교육 부문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조천호님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특별상 교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역임한 조천호님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이사이자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운영위원으로서 기후운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진행한 ‘기후행동학교’의 강사이며 기후위기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지역 운동조직에 기여했습니다.

언론 기고와 출간, 온오프라인 강연과 대중매체에 출연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연구활동가’ 조천호님의 선한 영향력은 한국의 기후운동 확산에 앞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최준호

## <청년기후긴급행동> 특별상 청년 부문 수상자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청년기후긴급행동>을 2021년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특별상 청년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름처럼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연결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만한 독창적이고 과감한 직접행동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충분했습니다. 기후 위기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의 무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린워싱’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이중성을 폭로하였습니다. 공통 탈을 쓴 기호 0번 후보자가 되어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고, 회색 물감을 온몸에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통해 회색빛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누구보다 다양한 환경 이슈를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설립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그 이상의 활동을 해 왔고, 새로운 환경운동의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만들어왔던 활동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특별상 청년 분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정민석

## <김윤전> 특별상 청년 부문 수상자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김윤전 님을 2021년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특별상 청년 분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김윤전 님은 조류를 공부하는 자연과학도로서, 대학교 재학 시절 야생조류연구회 동아리 활동을 하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자 야생조류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시민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와 함께 <내성천 흰목물떼새 시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에 함께하였고,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참여 조사 지침서> 발행 과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김윤전님은 조류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여전히 관련 활동과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새들의 소리에 집중하고, 관찰하며, 사소하다고 평가받는 것들을 지나치지 않는 김윤전 님과 같은 청년 연구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야생조류를 사랑하는 청년 김윤전 님의 활동을 응원하며,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특별상 청년 분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정민석

## <기후위기 사하비상행동> 풀뿌리활동지원기금 선정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부산시 사하구 지역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실천하는 <기후위기 사하비상행동>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상 풀뿌리 활동지원기금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기후위기 사하비상행동>은 전 지구적 기후 위기 극복에 시민들도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으로 주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생태적 위기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 및 실천대안 마련도 요구해왔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일상생활 속 기후위기 실천 활동을 계획하고 사하구 내 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에 ‘기후위기 사하비상행동 준비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교육을 한 뒤 12월부터 ‘기후위기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동안 매주 1회 평일 지하철역, 휴일 등산로 입구에서 기후위기 사진전을 하면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사하구의 구정에 기후 위기 극복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기후위기 사하구 주민발의 조례제정 추진운동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하비상행동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 지역 곳곳에서 기후위기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생활실천단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니다.

심사위원회는 상근 활동가 없이 노동자, 교사, 변호사, 정년퇴직자, 학생, 예술가 등이 평일, 휴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발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기후 위기를 알리고, 사하구 기후위기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하는 기후위기 사하비상행동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상 풀뿌리 활동지원 기금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 공영관

### <김개남과 상두산회> 풀뿌리활동지원기금 선정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전북 정읍시의 상두산에서 석산파괴로 오염되는 지금실 저수지의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계획하는 <김개남과 상두산회>를 2021년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풀뿌리 활동지원기금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두산은 20년째 진행된 석산개발로 산림 훼손이 심각합니다. 각종 오폐수 방류로 지금실 저수지도 오염되고 있고,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도 위협에 처했습니다. 한편, 상두산은 동학농민혁명 성지로 동학의 최고지도자 중 한분인 김개남 장군의 고택이 있어서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개남과 상두산회는 상두산 보호 활동을 지속해왔고, 작년 12월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 9월에는 김개남과 상두산회라는 등록단체로 설립된 뒤 상두산 일대의 생태계 모니터링과 상두산 자락의 석산 피해와 환경영향조사, 지금실 마을 발전을 위한 타지역 탐방 및 모범사례 연구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김개남 장군 학술대회 유치 및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석산으로 파괴되는 환경과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상두산 주변 생태계를 보존운동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체를 복원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김개남과 상두산회의 그간 노고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표하며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풀뿌리 환경지원기금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김강민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을 바라는 사람들> 풀뿌리활동지원기금 부문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백지화하여 제주도의 도로

난개발과 생태파괴를 막고, 도로 예정지의 녹지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이하 서녹사)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상 풀뿌리 활동지원기금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서녹사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반대하는 27명의 시민들이 모여 2019년 5월부터 도로개설 백지화 서명운동, 시민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서귀포에 불필요한 차로 개설을 막고 도로 예정지를 녹지 산책로로 만들어 시민건강과 생태환경을 지키려고 나선 모임입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계획은 서귀포 구도심지 북부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35m폭 6차선 4.2km를 낸다는 것입니다. 서귀포에는 동서를 지나는 일주도로, 북쪽 중산간도로가 있습니다. 일주도로와 중산간로 사이 거리는 1km 남짓으로, 중산간로가 이미 도시 우회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또 새로 계획되는 우회도로가 건설되면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 잔디광장과 소나무숲이 사라집니다. 많은 교육시설과 학교가 이 근처에 있기에 환경파괴는 물론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21년 10월까지 사업타당성 재조사와 재심사를 마치면 2021년 말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도로 난개발을 막고,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서귀포를 생태도시화하려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을 응원하며, 제2회 오체투지환경상 풀뿌리 활동지원기금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강성안

## <원주녹색연합> 풀뿌리활동지원기금 부문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원주에서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원주녹색연합>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상 풀뿌리 활동지원기금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원주녹색연합은 2004년 12월 설립하여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건설, 비폭력 평화실현, 녹색자치의 실현을 통한 원주 및 강원지역 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조성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있고, 여러 곳에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가로수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녹지대를 형성하는 곳이 가로수이며 도심의 미관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쉼과 안식의 공간이자 조류 및 못 작은 생명체들이 깃드는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로수를 잘 성장하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며, 수종을 잘못 선택해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베어내는 일이 반복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원주녹색연합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를 모

니터링하고 지자체의 바람직한 가로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가로수의 생장 및 세심한 관리를 목표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풀어가려는 <원주녹색연합>을 응원하며, 제2회 오체투지환경상 풀뿌리 활동지원기금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서상현

## **<EJ현장연구모임> 환경연구지원기금 부문 수상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전국 환경오염취약지역 관련 연구사업을 신청한 <EJ현장연구모임>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연구지원기금'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EJ현장연구모임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주민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실천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국 환경오염피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기반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역의 환경오염피해 문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오랜 시간 지역주민의 삶과 건강을 파괴해오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이고 소수여서 주민들의 환경권 문제는 환경이슈로 크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해결이 더디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피해자의 관점과 지역사회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일률적으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현장 파악에 오히려 법과 제도가 적절한지를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현장을 기반으로 전국의 환경오염취약시설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EJ현장연구모임>을 응원하며, 제2회 오체투지환경상 풀뿌리 연구지원기금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박은영

## **<DMZ일원 생명평화시민연대> 환경연구지원기금 부문 선정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강화에서 철원까지 DMZ 일원의 국제 멸종위기종 두루미 동시 조사 사업을 신청한 <DMZ일원 생명평화시민연대>을 2021년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환경연구지원기

금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DMZ 일원 생명평화시민연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DMZ 일원의 생태계와 문화유산 보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 지역형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MZ 일원은 6.25 전쟁 휴전 이후 68년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나 개발이 제한된 곳으로 동서를 이어주는 생태통로입니다. DMZ 일원은 남한 면적의 1.6%에 불과한 작은 면적이지만 환경부에서 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42.7%가 살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령도의 물범, 서해 무인도의 저어새, 중서부 DMZ 일원의 두루미, 동부 산악지역의 사향노루는 DMZ가 없었다면 지구상 또는 국내에서 멸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루미는 DMZ 일원의 대표적인 깃대종이고,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해 두루미가 서식하는 곳은 생태적 가치와 우수성이 뛰어난 효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최근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습지와 평야지역이 주를 이루는 서부와 중부의 DMZ 일원은 인삼밭, 과수원, 축사, 해안도로 건설 등의 농경활동과 개발로 인해 두루미를 포함하여 각종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취약해지고 있어 이 조사는 더욱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강화에서 철원까지 DMZ 일원에 흩어져 월동하는 두루미 개체수를 파악하고 두루미 서식지를 법적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DMZ일원 생명평화시민연대>를 응원하며, 제2회 오체투지환경상 연구지원기금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박은영

## <녹색법률센터>

### 환경활동지원기금 부문 선정 결정문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 환경피해 대응 활동 법률지원 및 법제연구’,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소송 주민 법률지원’ 사업을 제안한 <녹색법률센터>를 2021년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활동지원기금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 문제에 대한 법률 대응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려고 설립된 ‘자연의 첫 변호인’ 단체입니다.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 군산미군기지 소음소송, 4대강 국민소송, 밀양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국민소송,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송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환경 소송을 담당하였고, 환경활동가를 위한 녹색법률학교, 예비법률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등 다양한 교육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 강화, 오염유발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권리 보장, 환경피해 재발 방지 등에 주목합니다.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 사례를 통해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한,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례는 도시 난개발을 저지하고 공유자산으로서의 도시 녹지의 의미를 일깨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녹색법률센터>의 활동은 단순히 환경소송 대리가 아니라, 환경피해 현장에서 '환경정의'와 주민의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녹색법률센터> 활동을 응원합니다.

결정문 대표정리 윤상훈